

##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예수님은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셨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전 생애 동안 계속 수행된 과정이었다.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일은 그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두가지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죄가 하나이듯이 구속도 마찬가지로 하나이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과 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깊이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축복을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

### 첫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골로새서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피가 하는 일은 화평을 이루는 일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유롭게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와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다. 이 소식이 나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사랑, 기쁨, 평화, 지혜등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게으름뿐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 발휘하는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불신앙을 정복하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흘러 넘치는 축복으로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자.

### 둘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사는 전 생애를 포함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 드렸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받은 것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행해진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

고 수고하면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고 그가 주신 참 멍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분리 될 수 없다.

한 구절에서는 십자가의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씀 한다.

갈라디아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음 세 구절에서는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로 말씀 하신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승리는 자기 중심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이는 능력을 말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사실과 또한 그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그와 일치하게 된 사실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휘된 능력의 결과로서 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가 그에게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에,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죄를 이기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피와 십자가는 불가 분리의 관계로 연합 되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피속에 있다. 그 피를 접할 때 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마다 그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성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라고 말하면 많은 부담을 느낀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부담을 느끼며 살았고 그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많은 죄의식을 느끼며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라**

는 말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는 명령은 무거운 짐이 되는 말이 아니라 무한한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덧 입을 수가 없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은 주님을 본받고 살기 위하여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가?